



왼쪽부터 양현종, 지크, 헥터.

KIA 막강 선발 살아났다

**3연속 워닝시리즈 ... 양현종·지크 2승씩·헥터 4경기만에 승
기약없는 윤석민·기복있는 임준혁 ... 4·5선발 고민은 여전**

KIA 타이거즈의 '선발야구'가 시즌 첫 3연속 워닝시리즈를 이끌었다. KIA는 지난 25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9-0으로 이기며 주말 시리즈의 워닝시리즈를 확정했다. 앞서 롯데와의 홈경기 그리고 지난 주말 LG와의 원정경기까지 시즌 첫 3연속 워닝시리즈다. 3연속 워닝시리즈를 달리는 동안 양현종·지크가 2승을 챙겼고, 헥터도 4경기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웃었다. 모처럼 '선발야구'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가져 온 워닝시리즈 행진이다.

올 시즌 KIA의 가장 큰 전력으로 꼽히는 부분은 선발진이였다. 윤석민의 선발 복귀 속 헥터와 지크 두 외국인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탄탄한 선발라인이 구축됐다. 김운동의 성장세 속에 5선발 고민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투경을 연 2016시즌은 선발 고민의 연속이었다. 윤석민의 부상과 양현종의 부진이 컸다. 윤석민은 시즌 첫 등판에서 승을 거두며 궤도의 질주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하

지만 세 번째 등판이었던 4월17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9이닝 완투를 기록한 뒤 자취를 감췄다. 고질적인 어깨 통증이 문제였다. 양현종은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었지만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적을 냈다. 초반 불운에 올랐던 양현종은 이후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의 아이런'이 됐다. 도중 최고의 원투판지로 기대를 모았던 윤석민과 양현종이 6월 중

순까지 합작한 승수는 단 2승에 불과했다. 이들이 출격했던 16경기의 팀 성적은 2승1무13패였다. 6월17일 LG전이 반전의 시작점이었다. 양현종이 첫 승을 거뒀던 5월13일 한화전 7이닝 무실점 이후 처음으로 6이닝 동안 단 한 명의 주자에게도 홈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즌 두 번째 승을 거뒀다. 1승까지 8경기, 2승까지 6경기가 걸렸지만 3승은 바로 이뤘다. 23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서는 이닝을 더 늘렸다. 황재균에게 투런포를 맞기는 했지만 7이닝 4피안타(1피홈런) 9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시즌 첫 승을 장식했다. 그리고 양현종의 승리로 팀은 연속 워닝시리즈를 기록했다.

5승 이후 두 경기 부진 후 두 경기 불운으로 승을 추가하지 못했던 지크도 연승을 달렸다. 지난 19일 LG 원정에서 타선의 도움을 받으며 승리투수가 된 지크는 25일 NC원정에서는 특유의 강속구를 앞세워 연승을 이뤘다. NC 강타선을 열리는 만점 피칭으로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지크는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9-0 팀 완봉승의 주역이 됐다. 또 팀은 첫 3연속 워닝시리즈를 완성했다. 2013년 6월 11~13일 홈 시리즈 이후 1109일 만에 이룬 NC전 워닝시리즈이기도 했다. 여기에 헥터도 무승의 고리를 끊으며 워닝 시리즈 행진에 동참했다. 헥터는 24일 NC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워닝시리즈의 기선을 제압하면서 7승에 성공했다. 해줘야 할 선수들은 5경기에서 33이닝도 책임져주면서 위기의 불펜에도 힘을 실어주었다. 양현종, 지크, 헥터의 활약에도 4·5선발 고민은 남아있다. 기약 없는 윤석민에 임준혁도 기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5선발로 깜짝 활약을 해줬던 좌완 투기 정동현은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4·5선발의 모습에 따라서 KIA의 남은 6월 성적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속구 에이스’ 효천고 유승철 KIA 오나

KBO 오늘 신인 1차 지명 발표
2017시즌을 대표할 ‘아기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17 신인 1차 지명 선수가 27일 발표된다. 순천 효천고 에이스 유승철(사진), 광주 동성고의 ‘특급 외야수’ 김석환·박진수가 KIA 타이거즈의 호명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들이다. 유승철(185cm·83kg)은 김진우-곽정철-한기주-한승혁 등 타이거즈의 강속구 계보를 이을 후보로 눈길을 끈다.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그는 심상한 어깨가 가장 큰 무기다. 본격적으로 투수로

나선 올 시즌 직구 최고 구속은 148km를 찍었다. 변화구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있다. 슬라이더를 주로 던졌던 유승철은 최근에는 커브와 스피드까지 더해지면서 투수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프로에서 본격적인 투수 수업을 받게 되면 스피드·변화구 구사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미완의 대기’다. 유승철이 ‘아기 호랑이’로 낙점되면 효천고는 차명진(2014년)-이민우(2015년)에 이어 다시 한번 1차 지명 선수를 배출하게 된다. 동성고의 주말리그 후반기 7전 전승을 이끈 ‘캡틴’ 박진수(188cm·88kg, 우투우타)와 ‘강견’ 김석환(187cm·87kg)도 1차



지명 후보다. 좋은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두 선수는 대형 외야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동성고의 주장이자 파워를 앞세운 거침없는 공격력으로 주목을 받는 선수다. 강한 어깨와 빠른 발도 보유하고 있다. 김석환은 좋은 선구안을 바탕으로 3번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힘있는 좌투좌타라는 장점도 있다. 동성중 시절 팀 에이스로 활약을 했던 김석환은 투수로의 성장 가능성도 있다. 박진수나 김석환이 1차 지명을 받게 되면 동성고는 2006년 ‘10억팔’ 한기주에 이어 모처럼 1차 지명이라는 경사를 맞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6일 대구 월드컵경기장 인공암벽장에서 열린 2016 영·호남 거니에신산 원정대 발대식에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지역 학생산악연맹 대원들이 등반성공을 다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4년만에...영호남 학생산악연맹 ‘화합의 등반’

광주일보 후원 중국 사천성 거니에신산 합동원정대 발대식...30일 출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24년만에 화합의 등반길에 오른다. '2016 영·호남 학생산악연맹 거니에신산 합동원정대'가 2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월드컵경기장 인공암벽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등반을 다짐했다. 이번 원정은 그동안 국내 교류등반을 통해 꾸준히 친목을 다져왔던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회장 류재강),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회장 홍종욱), 부산학생산악연맹(회장 이창호)가 뜻을 모아 성사됐으며, 지난 1992년 광주일보 후원으로 이뤄진 광주학생산악연맹과 대구학생산악연맹의 '포베다·칸텐그리텐산원정대' 이후 24년만에 꾸러졌다. 원정대가 가는 곳은 중국 사천성 서부 리탕고원에 있는 해발 6204m 고지의 만년설인 거니에신산. 등반 구간 구간마다 고정로프를 설치해 올라야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산이다. 광주·전남 6명, 대구·경북 4명, 부산 5명으로 선배 3명이 대장을 맡고 각 대학 산악회원들로 구성된 원정대는 지난

해 12월 경남 거창의 금원산을 시작으로 올해 4월과 6월에는 곡성 동악산과 경남 밀양 백운산에서 실제와 같은 중량의 배낭을 매고 능선을 타고 암벽을 오르내리는 등의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다. 또 각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매일 밤 10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10km 구부, 계단 오르기, 인공암벽 타기 등의 각 대원별 훈련량을 서로 점검하며 체력을 다져왔다. 류재강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회장은 격려사에서 '신입회원들의 가입이 저조해 학생산악부의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시기에 꾸러진 이번 합동원정대가 구학생산악연맹의 '포베다·칸텐그리텐산원정대' 이후 24년만에 꾸러졌다. 원정대가 가는 곳은 중국 사천성 서부 리탕고원에 있는 해발 6204m 고지의 만년설인 거니에신산. 등반 구간 구간마다 고정로프를 설치해 올라야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산이다. 광주·전남 6명, 대구·경북 4명, 부산 5명으로 선배 3명이 대장을 맡고 각 대학 산악회원들로 구성된 원정대는 지난

다. 이번 원정을 총괄 지휘할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이정현 대장(순천대 OB)은 "24년 만에 꾸러진 영·호남합동팀에 각자·도 연맹의 기대가 크다"며 "끝나는 날까지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등반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원정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6일간 계속된다.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 도착해 행정적인 처리와 식량 등 물품 구입을 한 후 차량으로 사흘을 이동해야 도착하는 리탕고원에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해발 3,900m에 베이스캠프를 구축해 고소에 적응하고 현지 지형과 기상을 점검한 후 동남쪽으로 뻗어있는 능선을 따라 제1캠프(4,800m)와 제2캠프(5,400m)를 구축하고 극지방방식으로 등반한다. 우기인 현지 기상 상황을 고려해 6, 204m 정상 부근부터는 등반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로프를 연결하여 묶고 오르는 '인자일련' 등반으로 공략, 정상 등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대구=김진수기자 jeans@

여고생 성은정, 18번홀 '와르르'

선두 질주하다 트리플 보기...연장전서 무릎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3년차 오지현(20·KB금융)이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생애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금호중앙여고에 재학 중인 성은정(17·사진)은 18번 홀에서 3타를 잃으며 우승을 놓쳤다. 오지현은 26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파72·6천522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최종일 연장전에서 아마추어 성은정과 최은우(21·불백)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ADT 캡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낸 오지현은 7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하나 더 보냈다. 극적인 우승이었다. 18번홀(파5) 티잉그라운드에서 올라설 때 성은정에 4타 뒤진 오지현은 성은정이 트리플보기로 3타를 잃는 사이 바디를 잡아 극적으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4라운드를 1언더파 71타로 마친 오지현과 1오



버파 7타로 마무리한 성은정 그리고 2타를 줄인 최은우는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연장전에 나섰다. 18번홀에서 벌어진 연장전에서 오지현은 3m 바디 퍼트를 성공해 거지말 같은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박성현(23·넵스)은 3타를 줄였지만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해 공동 4위(9언더파 279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김태균 세계핀수영 세계新 우승

핀수영 강관 김태균(30·광주시체육회)이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가르며 정상에 올랐다. 김태균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그리스 볼로스에서 열린 제 19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100m잠영 부문에서 31초 34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종전 세계 기록은 31초 52다. 그는 이날 대회에서 콜롬비아의 페르난데스 카스티(FERNANDEZ CASTI)와 공동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김태균은 단거리 최강자로 지난 2014년 광주체육을 빛낸 최우수 선수에 뽑힌 바 있다. 이관호(대전체육회)는 31초 46의 기록으로 3위에 머물렀다. 이관호는 대회 전만 해도 표면 50m·100m, 잠영 50m·100m, 계영 400m 등 총 5종목에 출전해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노렸었다. 핀수영은 돌고래 꼬리 같은 모노핀이나 오리발 같은 짝핀을 신고 규정된 거리를 누가 빨리 헤엄치는지 겨루는 종목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